

자료제공 : 2023. 2. 28.(화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

안전총괄과장 김희갑 02-2133-8010

안전총괄팀장 주재완 02-2133-8012

안전정책팀장 김상우 02-2133-8023

담당자 신민표 02-2133-8013

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

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02-2133-1920

광고물팀장 백승운 02-2133-1939

담당자 장성진 02-2133-1919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7쪽

### 서울시, 25개 자치구와 손잡고 도시안전 협력 과제 추진

- 서울시, 현장 중심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 세워 재난 대응 역량 강화
- 전문가 참여한 '도시위험성 평가'를 통해 신종재난 예측 및 위험 요소 발굴·해소
- 전 자치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전문성 강화로 신속한 재난 대응·대비
- 서울시, 공해 수준인 '정치 현수막' 막고자 25개 자치구청장과 뜻 모아 대책 논의

서울시는 오늘 오전 8시, 어떠한 재난·사고에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현장 중심으로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'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' 자치구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.

○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이후 '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전담팀(TF)'에 참여하여 지난 1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'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'을 함께 마련한 바 있다.

- 서울시는 자치구청장 회의를 통해 급격한 기후·사회·기술의 변화와 도시 인프라의 복합화·대형화 등의 대도시 특성을 고려해 ‘재난관리 취약점 해소’, ‘실질적 기능 활성화’, ‘시민 체감안전 증진’을 목표로 8대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(▲새로운 잠재 위험 대응 강화 ▲재난 안전 상황실 강화 ▲매뉴얼 체계 혁신 ▲실전적 훈련 확대 ▲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▲재난 현장 대응 강화 ▲일상 속 안전관리 강화 ▲시민참여 안전 문화 확산)을 세우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.
  
- 첫째, 서울시는 신종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‘도시 위험성 종합평가’를 바탕으로 잠재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보완해 위험 예측·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.
  
- 둘째, 시·소방 공무원 합동 근무 등 전문적인 근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상황실장 체계의 재난안전상황실로 강화하여 실시간 위험 감시 능력을 향상한다.
  - 또한, 서울시는 자치구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자치구별 6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. 지원 예산은 상황실 조성비, 재난 예방·대비·분석을 위한 연구비, 점검 장비 구입 등에 사용된다.
  
- 셋째,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복잡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간소화된 ‘기본 매뉴얼’을 제작하고, 개인별 임무와 실시간 조치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‘재난 대응 업무처리 앱’을 개발한다.

- 넷째, 시 내부 재난 훈련 일정을 수립하여 행동 매뉴얼 숙달 훈련 및 불시 훈련을 확대하고 시·자치구와 39개 재난관리책임기관 합동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실전적 훈련 확대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.
- 다섯째,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·소방·경찰·군·의료기관 등 재난 대응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‘위기관리 회의’를 운영하여 현장 아이디어의 정책화, 잠재 위험 도출·적용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- 여섯째, 병상 정보 및 환자 이송 내역이 실시간 공유되도록 재난 의료 및 수습 체계를 강화하고, 인공지능(AI)을 통해 출동 경로, 긴급신고전화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시스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재난 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.
- 일곱째, 출퇴근 맞춤 노선을 신설·증차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중교통 및 지하철 역사 혼잡도를 개선하고 인파 밀집 위험지역 실시간 예·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상 속 안전관리를 강화한다.
- 여덟째, 지진과 화재 같은 재난 상황을 가상현실(VR), 방 탈출 게임을 통해 체험하는 가상재난 참여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, 안전 아이디어 ‘시민공모전’을 개최하는 등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.

□ 이날 회의에서 각 자치구에서는 상황에 맞는 재난 대응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종로구와 노원구, 관악구, 강동구는 각각 재난 대응 강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.

- 종로구는 지역 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요 재난 유형별 민간전문가를 확보하여 재난 현장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.
- 노원구는 재난안전상황실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인 스마트도시안전과를 신설하고, CCTV 관제센터의 인력을 재난 상황전파 전담 요원으로 활용하였다.
- 관악구는 전담 요원 9명을 확보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, 재난현장대응팀을 신설하여 24시간 현장 출동체계를 구축하였다.
- 강동구는 자율방재단, 안전보안관, 의용소방대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도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제공할 수 있는 ‘우리동네 실시간 재난 및 사고발생 지도서비스(안)’을 구축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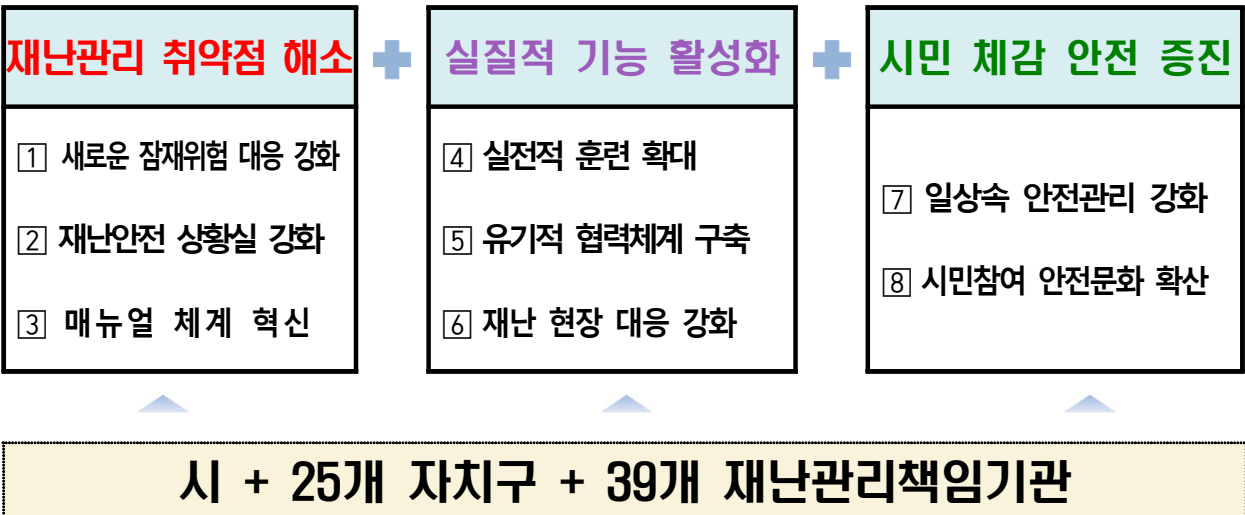
□ 또한 최근 「옥외광고물법」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오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대책을 논의하였다.

- 지난해 12월 개정된 현행 ‘옥외광고물법’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어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와 차량운행 안전위협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.

- 이성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은 “재난에 대한 예방부터 복구·회복까지,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유관 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,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소방·경찰 등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상황별 매뉴얼 정비 등 자치구 차원의 현장 중심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  
- 오세훈 시장은 “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”며 “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”고 밝혔다. 아울러 가로변은 물론 주택가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난입하는 정당 현수막을 두고 “이 자리에서 시민 피로도를 낮추고 보행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” 라고 말했다.

추진 전략

안전 서울, 시민 행복



**참고 회의 사진**

